

PHOTO ESSAY

사진산책

“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당신의 자리가 돼 드리리다”

가수 장재남이 부른 ‘빈 의자’의 첫 소절이다. 빈 의자는 휴식과 기다림을 상징한다.

한 사회가 보여주는 배려심은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의자의 숫자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.

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세대를 불문하고 걷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.

잘 조성된 둘레길은 물론이고 동네 골목길을 누비고, 도심 거리를 걸어 출퇴근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.

그렇게 걸다가 빈 의자를 발견하면 반가울 수밖에 없다. 때마침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.

잠시 앉아 휴식을 취하고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고 짧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.

그런 빈 의자를 공원뿐만 아니라 번잡한 도심이나 상가지역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.

삭막한 도시도 빈 의자 하나로 안락한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다.



제주도

중간

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. 일상과 심의 중간 같은 사진.
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



김민정/사진공감

이호준 Lee, Ho-Joon | 언론학박사·포토에세이스트

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.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, 다섯 차례의 개인전과 여섯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. 포토에세이 <걸으면 보이는>을 출간했으며,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.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, 대학과 지자체, 공공기관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.